

이번 가이드 라인에서는 비례리턴제는 적용하지 않고 제3국 중계도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하였다. 미국의 AT&T나 영국의 C&W 등의 해외캐리어는 지금까지 국제공전공서비스 참여에 관해 “가이드 라인을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린다”고 하였지만 이제 참여의 장벽은 없어졌다. 국제공전공접속을 이용하여 국제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DDI나 일본 국내 2종사업자에게도 호기로 작용할 것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향후 (1)국제 제1종사업자와 국제전용선 이용에 관한 약관의 업무제공계약 (2) NTT 등 일본 내 사업자와 접속 (3)교환기의 설치 등 실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국제 1종사업자가 제삼국중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00개국 이상과 직통회선 설치가 전제로 되는 「100對地 의무」도 ‘국제전기통신사업의 영향 등을 검토한 후’라는 전제가 붙었지만 폐지가 결정되었다. 해외통신사업자의 참여가 촉진될 뿐만 아니라 국제진출을 결정한 NTT도 부담이 경감될 것은 분명하다. (정 신 량)

베트남의 통신위성계획

베트남 정부는 2억~2.5억불상당의 통신위성 발사 의욕을 보이고 있다. 향후 10년간의 계획으로 정부에 제출된 본 프로젝트는 벌써 미국과 프랑스의 정보통신회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상설비를 포함하면, 해당 프로젝트의 가치는 6억불에 해당된다.

위성체와 발사 사업에 관련해서 베트남과 이해관련이 깊은 미국과 프랑스가 일대 정치게임을 전개하고 있다.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업자들은 미국의 Lockheed Martin, Hughes, Space Systems /Loral, 그리고 프랑스의 Alcatel, Matra-Marconi Space이외에도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의 위성제조업자들까지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ITU에 의하면, 베트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정보통

신시장이자. 베트남정부는 현재 2000년까지 100인당 6대로 전화보급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참고로 1997년 말 현재는 2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계획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이다. 새로운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베트남전쟁이후 첫 번째의 대단위 사업이므로 단순히 수주전에 국한되지 않고 베트남의 對미국전략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상당히 조심스런 면이 없지 않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1979년 전쟁을 겪은 대상이고 인접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중국을 경월하기에는 위협이 없지 않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유럽기업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정상의 문제인데, 미국의 경우는 결코 낙관할 수 없다.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정부성격상 사회주의 고수파와 개혁파가 균형을 이뤄 왔으나 최근에는 사회주의 고수파가 득세하여 베트남의 정책노선을 보다 주시하여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김 국 진)